



# 'KIA 타임' 시민들 생활이 바뀌었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경기 시간에 맞춰  
퇴근 빠리하고 식당·술집도 TV 앞으로만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무한 질주'가 광주시민들의 생활패턴까지 바꾸고 있다. 사실상 KIA가 올해 정규리그 1위 자리를 굳히고 매 경기마다 '미쳤다'는 표현이 나올만큼 대활약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퇴근 길도 빨라지고 TV 없는 식당·술집은 발걸음을 차하지 않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스크린·TV 없는 식당·술집 'NO'=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 맞은편에서 호프집(132.2㎡)을 하는 주인 김모(35)씨. 그는 지난달 15일 자신의 가게에 TV 2대를 설치했다. 야구를 좋아하는 손님들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서였다. 김씨의 생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TV를 설치하면서 매출이 크게 는

것이다. TV 설치 후 하루 평균 매출액은 100여만 원. 설치 전에는 하루 평균 매출액이 60만~70만 원이었다. '야구 중계=매출 증대'라는 식의 등식이 널리 알려지면서 앞다투어 TV 또는 스크린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대 후문 상가 10곳 중 3~4곳은 TV 또는 스크린을 통해 야구 중계를 해주고 있다는 게 상가 주인들의 설명이다. 김씨는 "야구중계를 안 해주면 손님들이 아예 찾질 않는

다.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TV 틀어 주나요'라고 말하는 손님도 많다"라며 "KIA 성적이 좋아지면서 가게 매출도 덩달아 쑥쑥 늘고 있다"고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오늘 당직 대신 설게요"=모회사 타이어 영업사원인 정모(32·서구 농성동)씨. 그는 요즘 회사에서 '대리 당직맨'으로 통한다. 평균 사흘에 한 번 꼴로 당직을 서기 때문이다. 정씨가 '대리 당직맨'이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야구 때문이다.

그는 KIA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당직을 대신 선다. 오후 7시 퇴근 후 사무실인 나주에서 집인 광주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씨는 "동료 당직도 대신 서고 야구경기도 시청하고 이런 게 바로 '깡 먹고 알 먹고' 아니겠나"며 "요즘 KIA의 야구 중계를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살한다. 나 말고도 야구를 보려고 일부러 당직을 바꾸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다"고 말했다.

다. <퇴근길이 빨라졌다=회사원이모(32·동구 지산동)씨는 요즘 퇴근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향한다. KIA 경기를 보기 위해서다. 시끄러운 식당 등에서 야구를 보는 것보다 조용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청하는 게 좋기 때문이다. 퇴근길이 빨라지면서 부부 관계도 좋아졌다. 술에 취해 귀가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화가 많아지면서 부부싸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이씨는 "야구가 부부관계를 돈독하게 해준 것 같다. 요즘엔 부인이 나보다 더 야구 경기에 푹 빠져 산다"며 "조만간 야구장에 함께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충형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07분 해질 18시 56분 달돋이 18시 30분 달질 05시 30분

**일교차 커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으며 일교차가 크겠다.

광주	맑음	19/30℃
목포	맑음	20/28℃
여수	맑음	21/27℃
완도	맑음	19/29℃
구례	맑음	16/31℃
해남	맑음	17/29℃
장흥	맑음	17/29℃
고흥	맑음	19/29℃
순천	맑음	18/30℃
영광	맑음	18/29℃
진도	맑음	18/29℃
전주	맑음	18/30℃
남원	맑음	15/30℃
목포	맑음	21/26℃

지외선지수: 낮음, 중등, 높음  
시중독지수: 낮음, 보통, 높음  
블랙지수: 낮음, 보통, 높음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5(토)	6(일)	7(월)	8(화)	9(수)	10(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19/30	20/31	20/30	20/29	19/29	19/29

# 올 수능 어려울 듯

9월 모의 평가, 지난해 보다 난이도 높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3일 실시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 평가의 난이도에 대해 입시전문가들은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특히 언어와 수리영역은 중상위권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고난도 문제가 출제돼 올해 수능 역시 언어와 수리 점수가 고득점 여부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3일 EBS와 진학사 등 입시 전문업체들에 따르면 이날 모의평가의 언어영역은 대체로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고,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쉬웠다

는 평이다. 진학사는 "6월 평가보다는 대체로 쉬웠지만, 비문학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출제돼 체감 난이도는 더 높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EBS는 "언어영역 출제 경향의 향



3일 광주 전남여고에서 고3 수험생들이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를 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이날 시험에는 광주·전남 등 전국에서 67만9천905명이 응시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상성을 유지하면서 6월 모의평가에서 시도한 변화들을 유지한 점이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수리영역은 6월 모의고사보다는 체감 난이도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어려운 수리' 기조도 포함돼 있었다는 평이다. 종로학원은 "해석과 기하는 평이하고, 경우의 수와 확률 등은 약간 어

리게 출제됐다.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동적기하나 통합기하에 해당하는 문항이 거의 출제되지 않아서 체감난이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6월 모의평가 때 비교적 쉽게 출제됐던 외국어영역은 오히려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진학사는 "전체적으로 호흡이 길어서 상위권 수험생의 점수 차이는 없을 것 같지만 중하위권의 체감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의 경우 전문지식과 문학적 비유가 등장해 전체적으로 어렵게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자전거 수송분담률 2020년 10%로

시민 5명 중 1명꼴 보유 늘리는 목표치를 설정했다.

광주시민 5명 중 1명꼴로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송분담률은 2.46%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전거 이용자 중 상당수는 교통사고 위험 등 이용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자전거 이용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시 자전거이용시설 재정비계획' 최종보고안에 따르면 시는 자전거보급률과 수송분담률을 오는 2014년까지 각각 50%, 7%, 최종목표연도 2020년까지 80%, 10%까지

늘리는 목표치를 설정했다. 시는 올 상반기 시 전역의 자전거도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자전거 전용도로 414.41km, 전용도로 55.53km 등 자전거도로 연장은 469.94km로 파악됐다. 자전거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는 불법주차차량 및 물건 방치 15.9%, 보관장소 미흡 및 도난 위험 12.2%, 보도·차도와 자전거도로 미분리 11.5%, 자전거도로 노면상태 불량(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현석기자 chadol@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젊음이 있는 대학!!  
**광신대학교**  
학사부 학사팀 606-1114 / 대학원 605-1115

**2009년 9월 4일 금요일**

신선식품	신선식품	신선식품	신선식품	신선식품	신선식품
신선식품	신선식품	신선식품	신선식품	신선식품	신선식품
신선식품	신선식품	신선식품	신선식품	신선식품	신선식품

**이태리 식탁, 좌탁, 책상 전문관 오픈(신상품)**  
출판유일 이태리가구 작수입 100% MADE IN ITALY

주, 스페이스 가구발달/7개층  
현역스타일/전환경 전문 리모델링 사업부 10월 오픈(호남최초)

**아이엘리시아**  
아이엘리시아

671-1199